

한 일본인 종군기자가 본 1894년 청일전쟁과 조선

— 니시무라 도키스케의 『甲午朝鮮陣』 분석 —

趙 宰 坤*

1. 머리말-자료에 대하여
2. 니시무라 도키스케(西村時輔)의 행적
3. 서울에 오기까지
4. 서울사정과 민심 동향
5. 주요 정치가들
6. 군국기무처와 '조선개혁'
7. 일본군과 청국군, 조선군인들
8. 동학농민군의 동향
9. 맺음말-자료의 의의

1. 머리말-자료에 대하여

『甲午朝鮮陣』은 1894년 청일전쟁 진행상황과 동학농민군의 동향, 조선 사정 -특히 서울- 일반을 취재하기 위해 조선에 온 아사히신문사(朝日新聞社) 기자 니시무라 도키스케(西村時輔; 1867-1894)의 취재수첩 내용을 14.8×20.5cm의 소책자로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는 2006년 11월 일본 도쿄 간다(神田)의 한 고서점에서 발굴한 것이다. 그런데 『甲午朝鮮陣』은 정식 출판사가 아닌 오사카의 인쇄소에서 비매품 한정판으로 제작되었다. 당연히 그 내용이 소개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도서관에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떠 온 것이 보관되어 있을 뿐이다.

니시무라 도키스케는 1894년 8월 특파원으로 서울에 와서 활동하던 중 병을 얻어 그해 12월 28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사람이다. 이 자료는 그가 일본 아사히신문사 본사로 통신한 내용과 비망록을 한권으로 편찬한 遺著인데 그의 형 니시무라 도키히코(西村時彦)¹⁾가 동생을 기리기 위해 정리, 교정하여 1895년 12월 7일 오사카의 東區 平繁町 4丁目 日進堂印刷部에서 출판한 것이다. 책의 체제를 보면 먼저 니시무라 도키스케의 생전 사진, 1894년 12월 8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의 주러시아공사 니시 도쿠지로(西德二郎)가 니시무라 도키히코에게 보낸 애도의 편지, 같은 달 愛媛縣 知事 고마키 마사노리(小牧昌業)가 찬술한 〈西村德夫墓誌銘〉, 〈서문〉과 〈범례〉, 73쪽의 『甲午朝鮮陣』 내용, 책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도키히코의

1) 동경제국대학 고전과 출신으로 기자이자 문학박사였던 西村時彦(1865-1924)은 1887년 시사풍자 소설 『屑屋の籠』으로 등단한 이후 『奴隸世男』(1888), 『南島偉功傳』(誠之堂書店, 1899), 『紀行八種』(誠之堂書店, 1905), 『北白川の月影』(1905), 『都の春風』(誠之堂書店, 1899), 『日本宋學史』(杉本梁江堂, 1909), 『學界乃偉人』(杉本梁江堂, 1911), 『懷德堂講義』(文海堂, 1911), 『懷德堂考』(1925), 『碩園先生文集』(1936) 등 많은 책을 저술했다.

* 경원대학교 인문대학 겸임교수

당부²⁾ 등 총 83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특히 니시 도쿠지로는 우리에게 그로부터 몇 년 후 1898년 4월 주일 러시아공사 로젠과 대한제국의 내정간섭 유보 문제를 둘러싼 러일간의 국제협약인 〈Rosen-西協定〉 체결로 잘 알려진 인물로, 한때 도키스케가 그에게 의탁한 바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애도문을 쓴 것으로 보인다.

2. 니시무라 도키스케(西村時輔)의 행적

애원현 지사의 묘지명과 형 도키히코가 쓴 서문³⁾ 및 범례, 『東亞先覺志士記傳』 下(1936)에 의하면 니시무라 도키스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름은 도쿠오(德夫), 諱는 도키스케(時輔)며 鹿兒島縣 大隅國 熊毛郡 사람으로 1867년 9월 種子村에서 태어났다.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하였고, 아버지 도키키(時樹)는 시오노야 도우인(鹽谷宥陰)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문학으로 이름이 있었지만 27세에 열병으로 사망했다 한다. 도키스케는 유복자로 아버지 사망 3개월 후에 출생했다. 어머니는 平山 씨였다. 장자 오도시(土俊; 西村時彦)는 당시 3세였다. 그는 나이 16세에 도쿄로 유학했고, 두 살 아래인 도키스케는 고향에서 중학 졸업 후 도쿄로 와서 18세 때에 후일 러시아 특명전권공사가 되는 니시 요시노리(西吉甫; 西德二郎)에게 의탁했다. 도키스케는 처음 공립학교, 이후 직공학교에서 造船學을 배웠다. 그러나 뜻과 맞지 않아 다시 1890년 明治法律學校 4년을 졸업하고 가고시마(鹿兒島) 신문에 들어가서 2년 동안 활동한 적이 있었

2) “明治 28년 12월 7일 大阪 日進堂에서 인쇄를 마침에 따라 1周年祭 기념으로서 亡弟 생전에 교류하고자 했던 諸君에게 보내니 모두 집에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鹿兒島縣 土族 大阪府 西成郡 曾根崎村 2610번지에 寄留하는 西村時彦.”

3) 이는 다른 기록에도 전제되었다. 西村天囚, 1896, 『甲午朝鮮陣の序』, 『日清戰爭實記』 50, 博文館.

다. 같은 기간 형 도키히코는 아사히신문사에 초빙되어 오사카에서 활약했다. 그러자 동생도 형을 따라 1892년 아사히신문사에 들어가 과묵히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중 1894년 ‘조선국의 내란’(동학농민전쟁)과 ‘日淸의 事’(청일전쟁)가 일어났다.

일본과 청국이 선전포고를 하자 오사카에 있던 도키히코는 평양 제1군의 전투 관전 차 인천을 거쳐 서울로 들어갔고⁴⁾ 도키스케는 시모노세키에 있으면서 형세를 탐보했다. 이 시기 도키히코는 돌연 병이 생겨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는데 도중 조선으로 들어오는 동생을 울미도에서 만났다. 도키스케는 “전쟁은 일시적이지만 조선의 독립문제는 일조일석의 사업이 아니므로 마땅히 韓京에 머물러 깊이 정치풍속의 작은 것을 살핍으로써 후일의 재료로 삼고자 한다”며 자원 중군하였다 한다. 술을 나누며 도키히코는 그에게 전쟁이 오래갈 것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서울에 머물면서 조선의 정치 풍속 인사 등을 두루 살필 것을 주문했다.

서울에 온 이후 니시무라 도키스케는 시세를 파악하고 조선어를 배우는 한편 일본과 조선의 주요 인사들을 방문하고 각처를 돌아다니며 활동했다. 그는 8월 31일부터 며칠씩 단위로 끊어 11월 8일까지 자신이 취재한 내용의 많은 부분을 본사에 송고했다. 그러던 중 11월 3일 일본천황의 생일인 천장절 다음 날 졸지에 말라리아에 걸려 와병하다가 한달만인 12월 3일 28세로 사망했다. 당시 그는 미혼이었기 때문에 집안 도키미츠(時三)의 둘째 아들인 12세의 도키히토(時人)로 양자를 삼아 그의 대를 잇게 했다. 그의 유골은 한강변 양화진에서 화장하여 동료사원이 고베로 들고 왔다. 아사히신문사는 그가 나라와 직분을 다하다 죽었다고 추도하여 회장으로 예를 갖추었고 오사카 아베노(阿部野) 묘지에 장례 지냈다.⁵⁾ 그의 조선생활은

4) 그는 1894년 청일전쟁과 관련하여 『入韓日錄』, 『觀戰日記』 등을 남겼다고 하는데 원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5) 니시무라 형제의 간략한 행적은 이후 浪人단체인 黑龍會의 列傳(葛生能久, 1936, 『東亞先覺志士記傳』 下, 黑龍會[1977년 原書房 복간본, 東京], 93-94쪽)에 각기 실려 있다.

1894년 8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100여 일 정도에 불과했지만 수첩에는 적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남겼다.

3. 서울에 오기까지

1894년 봄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있었고, 청국과 일본군이 모두 군사를 조선에 보내 그 결과 청일전쟁이 발발했다. 이때 니시무라 도키스케는 아사히신문사에 중군을 요청하였고 허가를 받아 동료 오가와 사다아케(小川定明)와 같이 조선으로 향할 수 있었다.⁶⁾ 일행은 8월 22일 밤 오사카를 출발하여 고베에 도착했다. 여기서 히고마루(肥後丸)를 타고 다음 날 23일 오전 4시 출발하여 8월 24일 오전 6시 시모노세키에 도착했다. 이 배는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 후비 군인들을 싣고 있었다. 다시 같은 배로 오후 4시에 출발하여 25일 오전 9시 나가사키 외항에 도착했다. 당시 일본해군은 나가사키항에 기뢰를 설치하고 고시에 근거하여 모든 배들은 입항을 해군정찰선에 보고하도록 했다. 일행은 상륙하여 우에노야(上野屋)에서 밥을 먹고 근처의 산에 올라가 시가지를 구경한 후 오후 5시 다시 히고마루를 타고 출항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6시 스시마의 이즈하라(巖原)라는 곳에 입항한 후 오후 2시 부산에 도착했다.

도키스케는 아사히신문사 부산특파원 아마노 아키라(天野皎)가 객사로 쓰고 있는 용두산 인근의 京阪亭이라는 곳에 숙소를 정했다. 당시 용두산 주변은 일본인 거류지로 호수 1천, 인구 5천명 정도였는데 도키스케가 처음 본 시가의 모습은 '아름답다고 할만하지만 역시 불결한 감이 있는 하나

6) 西村時輔가 아사히신문사의 특파통신원으로 임명된 사실은 1894년 9월 13일자 『東京朝日新聞』〈社告〉란에 실렸다. 전황이 확대됨에 따라 동 신문사에서는 조선통신원으로 인천에는 青山好惠, 서울 이북 戰地에는 小川定明, 부산에는 天野皎, 서울에는 西村時輔를 임명했다.

의 작은 변화한 곳'이었다. 이곳을 왕래하는 사람은 다수가 일본인으로 가옥구조 또한 일본풍이었다. 당시 물가는 평시의 3, 4배나 비쌌고, 얼음과 음료수는 물론 일용품도 부족하였다 한다. 그런데 도키스케와 함께 조선에 들어온 인물로 후작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⁷⁾ 일행도 있었다. 그는 명치천황의 사신으로 청일전쟁 시 조선국왕 위문차, 동행한 츠에마스 겐쵸우(末松謙澄) 법제국장관은 현황시찰을 위해 조선을 방문했다. 사이온지의 서울 체재는 10일간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는 일본천황이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玉과 다수의 선물을 휴대하였고, 츠에마스는 부산병참부의 징모에 응한 조선어 통역인 30여 명을 대동했다. 사이온지 일행은 곧바로 어용선 다마가와마루(多摩川丸)로 바꿔 타고 인천으로 향했다. 도키스케 등도 이 배에 같이 승선하고자 했지만 당국자 외에는 승선을 허락지 않아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이날 부산에서 도키스케가 청국과 일본의 전쟁과 관련하여 들은 풍설은 일본 해군은 두 차례에 걸친 웨이하이웨이(威海衛) 포격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이미 체푸(芝罘)를 점령했고, 육군 중 일부는 웨이하이웨이에 상륙했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인 50여 명은 멀리 상하이에서 청국군대에게 학살당했다고 한다. 조선에서 일본 해군은 풍도 부근에 근거지를 정하고, 육군은 용산의 병영을 개성부로 옮겨 두 차례의 대결전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이기에 그 조차도 확실한 내용으로는 보지 않았다.

27일 오후 4시 다시 도키스케 일행은 히고마루로 부산을 출발하였고 다음 날 아침 서해안의 豊島를 통과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지역은 일본해군이 청의 운송선 高陞號를 격침시킨 청일전쟁 初戰지역이었다. 그는 풍도 인근에서 일본 및 러시아 군함이 서쪽으로 향하는 것과 1척의 청국군함

7) 1849-1940. 언론인이자 정치가로 활약하였다. 1870년 프랑스 파리 소르본느 대학에서 수학하였고, 1894년 이토 내각의 문부과학상 이후 추밀원위원장, 총리 등을 역임했다.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는 수석전권위원으로 참석했다.

도 보았다. 29일 정오 인천항에 입항하였는데, 이곳에는 각국 군함 5, 6척 외에 일본 운송선 2, 3척이 정박하고 있었다.

여기서 그는 역사적 사실을 회고했다. 그는 부산-인천간을 '蕃船破'라고도 불렀던 '文祿의 役'⁸⁾ 때에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등이 명나라 군함을 바다에서 맞아 진격 분전하여 10수척을 빼앗은 곳으로 기억했다. 일행은 상설통신원 아오야마 요시에(靑山好惠)⁹⁾의 안내를 받았고 당일 인천을 출발 오후 11시 일본제 소형 쾌속증기선 釜山號에 편승하여 한강을 거슬러 서울로 들어갈 수 있었다. 다음날인 30일 오전 8시 용산에 도착해서 짐꾼을 고용하여 남대문 밖 만리창을 거쳐 입경했다. 당시 만리창 주변에는 일본군이 야영하고 있었고 그들의 왕래도 빈번했다. 그가 본 만리창 도로 양편의 집들에 대한 첫 인상은 '가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작은 돼지우리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불결하다는 점이었다.

4. 서울사정과 민심 동향

니시무라 도키스케는 8월 30일 서울로 들어온 이후 매일 한 차례씩 시가를 돌아보았다. 그는 서울의 민정과 풍속을 깊이 살필 여가가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시가의 불결'과 '민민의 몽매'는 강조했다. 또한 청일전쟁의 수라장 속에서 조선인들은 남대문 밖에 운집했고 일본군인들도 속속 입경하는

8) 임진왜란.

9) 1872-1896. 아오야마는 조선 내에 장기 주재하고 일선에서 중군하면서 각처 동학농민군의 동향 등을 본사에 송부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전봉준과의 회견 및 이후의 취조기록 등을 아사히신문 특종으로 보도한 바 있다(강창일, 1988, 『갑오농민전쟁 자료발굴-전봉준 회견기 및 취조기록』, 『사회와 사상』 창간호, 256-257쪽). 그는 아사히신문사 통신원을 사직한 후 인천에서 『朝鮮新報』를 창간하고 『仁川事情』이라는 책도 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다가 병을 얻어 25세로 사망했다(葛生能久, 앞의 책, 596쪽).

등 시가지의 혼잡은 극에 달한 것으로 평가했다. 조선 여행에 3가지 곤란한 점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열악한 도로와 여관 및 화장실의 부재를 들고 있다.

그가 본 서울의 일반민들은 수시로 모여서 무엇인가를 우왕좌왕 논의하고 소문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 일본 영사관 앞에서도 여러 명이 모여 일본군의 아산·성환전투¹⁰⁾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노획한 조선화폐로 빈민을 구제한다는 말을 했다. 당시 일본영사관에서는 서울의 빈민구조를 위해 일본 독지가가 보내온 의연금 등을 포함해 총 3만원을 마련했다 한다. 영사관에서는 이 중 절반을 조선 신화폐로 나머지 절반은 미곡으로 빈민들에게 건냈는데, 미곡을 받은 빈민들은 생계수단으로 활용하기는커녕 곧바로 팔아치워 술 마시는데 소비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의 후의는 '허공으로 날아갔다'고 평했다.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군에게 대단한 경계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대가 통과하는 길옆의 촌민들은 모두 도망했고, 조금 높은 언덕에 20~30명 정도가 모여 일본군에 돌을 던졌으며 남대문 밖에 있는 일부 조선인들은 일본군 보초병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인 대다수는 청일간의 전투에서 일본의 승리를 믿지 않았다. 도키스케는 '하등 감각 없이' 이를 관망한다고 개탄했다. 그렇지만 전투내용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수시로 일본인에게 결과를 물었다. 9월 17일 평양전투에서 일본군의 대첩사실을 고시를 통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럴까?'라는 한 마디 외에 특별히 이를 반기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일본군이 평안도 의주를 함락하고 청국의 봉천부까지 공격해도 일반인들의 감정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쟁의 풍문을 각 계층별로 느끼는 감이 달랐는데 '하등인민'들은 허황된 말이라 하고, '중등인민'은 승패의 사실이 아직 판명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오직

10) 1894년 7월 4일 청일전쟁 시 조선에서 최초의 陸戰으로 청국 聶士成군의 주력이 일본군에 대패한 전투이다.

‘상등사회’의 몇몇 만이 믿는다는 것이다. 청국은 일본을 ‘어린 아이’처럼 우습게 본다고 조선인들은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평양대승의 보도를 접한 일본 거류민들은 집집마다 일본국기를 걸고 축배를 들었고, 오토리 게이츠키(大鳥圭介) 공사는 서울 주둔 일본군인을 초대하여 성대한 축하연을 열었다.

평양전투의 승리를 전환점으로 하여 일본인들의 전의와 여론이 매우 상승했다. 일본영사관에서는 대첩 사실을 한글로 번역하여 남대문에 게시했다. 그러자 조선인이 이를 찢어버렸고 새로 써서 붙이고 순사를 두어 감시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파손한 사건도 있었다. 다른 한명이 옆에서 돌을 던져 순사에게 상처를 입히자 그곳에서 2명을 교사혐의자로 포박했다. 그러자 조선정부에서는 이들의 인도를 청구하여 결국 방면했다. 일본 측 입장만을 견지하던 그는 “한인의 망령된 상태가 왕왕 이와 같다”고 개탄했다.

한편 9월 18일 밤 9시경 남산과 북한산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밝혀진 일이 있었다. 일본인들은 경악했고 혹자는 이를 ‘百姓一揆’¹¹⁾라 했는데, 일본 병사를 보내 정찰 탐문했다. 병사는 조선인 10여 명이 횃불을 들고 산 가운뎃길을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그들 중 연장자 한 사람을 연행해 연고를 추궁했다. 그러자 조선정부의 관료로 추정되는 이 사람은 금일 ‘가을제전(秋祭)’을 행하는 것이니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방면했다. 우리의 추석관련 행사를 이해하지 못한 일본인들의 과민반응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기간 조선정부에서는 도성 내 중앙 3개소, 동서 남북 4대문에 각 1개소의 경찰서를 설치하고 순사를 배치했는데 그 수는 합하여 200여 명이였다.

경찰문제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언급했다. 조선의 내정개혁 중에서도 잘 진전된 사례로 본 경무청에서는 도성 내 5개소에 경무서를 두고 순사는 각 부서를 정해 순회를 시작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 4대문에 순사부무규율순

11) 一揆는 봉기를 말하는 것이다.

회규칙 및 違警罪와 같은 단속규칙을 게시하였다. 조선인 순사도 복장은 일본순사의 옷을 모방하였고 일본식 훈련을 받아 경례를 비롯한 모든 것은 일본 것을 따랐다. 그는 이를 ‘일한절충’이라 표현했다. 순사들은 낮에는 장해없이 순회할 수 있지만 야간에 시민들이 빈번히 작은 돌을 던져 매우 어려운 지경이었다 한다.

한편 일본정부는 전쟁특수에 따라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 인부 통제를 위해 다케히사 가츠조우(武久克造) 경시 인솔 하에 순사 100명을 특파했다. 이들 순사들은 ‘拔刀隊’를 조직했는데 그 이유는 거류지 인부들과 더불어 여타 조선과건 인부 중 ‘무지한 어리석은 백성’도 있어 그 단속이 곤란하기 때문일 것이라 추정했다.

당시 정부 관리들의 급료 현황도 제시했다. 즉 대군·왕자는 350元, 적왕손·왕손·총리대신은 300원, 대신·찬성은 200원, 협판·경무사·각 府衙·都憲은 120원 내지 150원, 참의는 80원, 주사는 15원 내지 40원인데 시세에 따르면 1元은 일본 1圓에 상당하는 것이다.

조선의 통화와 물가 문제도 주목했다. 특히 韓錢의 유동성을 누차 거론했다. 청일전쟁 초기 과정에서 한전가격은 점차 하락했고 조선인민들도 일본 통화를 신용하여 서울 내에서 서화 종이, 목 등을 사고 일본은화¹²⁾를 지불하면 받지 않는 자 없었다고 한다. 조선인들은 일본지폐와 교환을 선호했는데 특히 개성근처에서 일본지폐의 신용은 컸다. 그 이유는 일본지폐가 휴대에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가는 그가 처음 서울에 들어왔을 때는 일시 하락했으나 일본군대의 서울진주 및 이어지는 북진과 더불어 다시 폭등했고 한전 가격 또한 등귀하는 추세였다. 은화와 지폐의 차이는 1圓에 5전 내외이며, 청일전쟁 전에는 일본돈 1원으로 한전 3貫文을 교환했지만 근래 2관 500문을 내려가지 않고, 지금은 2관문 내외까지도 된다고 한다.

12) 1894년 7월 청일전쟁 과정에서 일본은 <신식화폐발행장정>을 공포하여 일본은화를 조선 내에서 유통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얼마전까지 조선은 朝報라 하여 손으로 쓰던 것을 이제서야 官報로 바꿨는데, 그 체제는 일본의 미농지 큰 종이를 두 번 잘라 그것을 假綴하고 1호 활자 정도의 목제 활자를 사용하여 인쇄한 것이라 한다.

서울의 문화재 중에서 도키스케가 묘사한 것은 東關王廟와 명동성당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 그는 9월 5일 아침 일본어학교장 나가시마(長島)를 방문했고 교장 및 사이온지 긴모치의 수행원 사카이 유사브로(酒井雄三郎), 다니가키 가이치(谷垣嘉市) 등과 동대문(興仁之門) 밖 東廟를 보러 갔다. 조선인 일본어학교 생도와 중국어학교 생도 3명이 마침 교장을 찾아온 관계로 동행을 권했다. 그러나 생도들은 모두 주저했다. 이는 일본인과 같이 성문 밖에 산보한다면 다른 조선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이었다 한다. 동묘의 제1문에 들어가서는 학동들의 책 읽는 광경을 보았고, 제2문 입장 시에는 약간의 뇌물을 주기까지 했다. 關羽가 모셔져 있는 대묘를 참배하였는데 좌우 수행 병사 2명의 塑像 정면에 있는 관우상은 안광이 빛나 아름다웠다는 것이다.

일행은 돌아오는 길에 南山亭¹³⁾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때 도키스케는 동행했던 한국인 학생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일어학생에게 “지금 전쟁은 일청 누군가 승리할 것인가?”라 묻자 그는 “처음부터 일본의 승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여항의 풍설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옆에 있던 중국어학생은 실망하는 기색이었지만 그도 일본인에 호의를 표했다 한다. 도키스케는 “일본의 威光이 무엇보다도 경성 내에서 혁혁하다”면서 흐뭇해했다. 이 생도들 3인은 나이가 16세 정도 되는 흉안 미소년으로 2명은 결혼했고 다른 한사람은 미혼이라는데 당시 미혼이었던 그는 조선의

13) 중구 필동 남산 기슭에 조선말기 세도정치가 조만영이 세운 '노인정'을 말한다. 1894년 6월 8일 일본공사 오토리와 신정회를 비롯한 조선의 대신들이 오토리가 제시한 5개 조항의 '조선개혁안'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결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후일 조선총독부 소유가 되었다.

조혼풍습에 놀랐다. 남산정을 나와 일본 거류지를 통과하여 한 선교사의 안내로 서구풍의 아름다운 누각이 공중에 우뚝 솟아있는 프랑스 천주교회당과 동쪽의 교회학교를 참관했다. 이는 지금의 명동성당 일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5. 주요 정치가들

도키스케는 朴泳孝와 興宣大院君을 비롯한 조선내 각 정치가들의 동향에 대해 서술했다. 특히 갑오개혁의 핵심인물인 법무협판 金學羽 암살과 관련해서는 직접 사건현장에 가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행한 것이 주목된다.

먼저 1884년 갑신정변 주도 후 일본에 망명했다가 갑오개혁과 내각이 구성됨과 함께 무려 10년만에 귀국한 박영효의 일자별 동정이다. 그는 도성 밖 용산에서 '近侍待罪' 중인 박영효를 조선정부에서 사면했다는 소식과 입경하여 일본공사관을 방문한 사실을 기록했다. 박영효는 용산에서 국왕에게 글을 올려 벌을 청했지만 이는 조정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들려졌고 국왕에게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 박영효는 일본공사관에서 항상 불평을 토로하고 있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서 쓰이게 될 것이라 추측했다. 그는 박영효 사면과 관련한 조칙을 원문 그대로 기록했다.

얼마 후 박영효는 조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왕과 대원군을 알현했는데, 이 때 대원군으로부터 일본 돈 2천원에 해당하는 韓錢을 받았다 한다. 조선정부가 9월 10일 신임 경상도 기장현감 李俊弼을 처형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 이유는 박영효가 일본군대를 인솔하여 궁궐로 들어가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정부에 무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항상 음험한 사람'이라는 세평이 있었다 한다.

홍선대원군에 대해서는 일본인들과의 정치적 교류, 근엄, 농민군과의 관련성 등을 언급했다. 앞서 부산에서 만난 적 있었던 후작 사이온지는 9월 6일 대원군을 객사에 초대하여 향응을 베풀었다. 밤에는 조선정부의 대신, 차관들을 초대했는데 문에 조선과 일본 양국의 국기와 전등을 걸어 성대한 유흥을 더했다고 한다. 답례 차 대원군은 다음 날 정오 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오토리 공사, 우치다 영사, 츠에마스 법제, 다나카 겐자브로(田中健三郎) 의전담당관, 기타 조선인 여러 명이 참석했다.

대원군이 9월 28일 일본공사관 방문 차 가는 길에 조선인 순사 한 사람이 그를 모르고 경례를 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 이를 문제 삼아 대원군은 경무사 李允用的 직을 면하고 순사를 법무아문에 보내 구형했다. 한 순사의 단순한 실례에 대한 책임으로 경무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도키스케는 생각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조선인 관리 4명이 도박을 하다가 그중 2명이 순사에게 체포되어 법무아문으로 보냈고 아문에서는 이들을 유배형에 처했다. 그러자 대원군은 크게 분노해 이들을 방면하는 한편 포박한 경무관 및 재판했던 법무관리를 斬하였다는 설이 있었다. 이에 도키스케는 조선인 관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물었고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회답서를 받았다. 그 내용의 원문은 수첩에 등재되어 있다. 도박혐의로 체포된 자는 3품 주임관 김동욱과 김기영이고 수배중인 자는 천영호, 최호익이었다.

당시 일반에 회자되던 대원군과 동학농민군과의 관계도 기록했다. 도키스케는 10월 10일 당시 군무아문 고문으로 있던 미국인 닌스테드(Ninstead)의 관저 방문 과정에서 30대 중반의 일본인 첩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대원군이 '가짜동학당(僞東學黨)'과 일찍부터 상응하여 거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인'(닌스테드)이 말했다고 한다. 또한 대원군은 궁성 내외에 동학도를 배회시키고 비밀리에 양식을 전달하는 한편 조선 내에서 가장 '독하고 사나운' 조선인 병사 100명 정도를 규합해 하시라도 일이 있으면 이들을 활용코자 한다는 것이다.

10월 31일에는 홍선대원군이 사저로부터 입궐 차 궁문 밖에 이르자 수백 명이 몰려와 그에게 도움을 호소한 일이 있었다. 대원군이 놀라 가마에서 내려 그 중 한 사람을 불러 연유를 물었다. 그가 답하기를 우리들은 충청도 洪州의 인민들인데 홍주목사 이승우가 지금 전라감사로 전임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이다.¹⁴⁾ 이승우는 정성으로 직무를 다해 인민들이 모두 따를 뿐 아니라, 동학당 토벌에 공이 있어 지금 홍주에는 한 사람의 동학도도 없다고 했다. 이는 실로 그의 공로이고 그가 전임한다면 인민은 안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특별히 상경하여 청원한다는 것이다. 대원군은 이들을 타이르면서 만약 그만두지 않는다면 너희들 중 3인을 포박하여 법무아문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도키스케는 군무아문 참의 金益昇을 방문한 바 있다. 김익승은 일찍이 慶應義塾 및 영어학교에 유학하여 일본어가 능통했다. 이때 도키스케는 김익승에게 육군조직과 향후 방침을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 고래의 육군의 규율 편제 등은 '空文徒法'에 불과하므로, 일본의 육군규칙법례 등을 참조하여 규칙조례를 만들어 지금 궁내성¹⁵⁾에 상신했고 재가를 받아 실행방침을 정할 것이라 답했다. 그런데 도키스케는 군무아문의 한 작은 방에서 조선인 관리 7, 8명이 모두 손에 긴 담뱃대를 들고 앉아서 회의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도키스케는 "한인은 민간에 있을 때는 나라 일을 논의하여 바야흐로 비분강개하지만 한번 관인이 되면 곧 활력을 잃고 姑息의 흐름에 빠지게 된다"고 적고 있다.

이 외에도 그가 만나고자 방문한 조선인 관리는 학무아문 참관 박정양, 참의 고영희 등이지만 마침 부재중이었다. 일본어학교 생도 출신인 학무아문 주사 安泳中¹⁶⁾은 면회할 수 있었다. 또한 어윤중 일파는 안경수 등 '일

14) 평양전투 이후 조선정부에서는 온건책을 견지하던 전라감사 김학진을 파면하고 농민군 토벌에 강성 입장을 취하던 홍주목사 이승우를 일시 그 자리에 임명한 바 있다.

15) 궁내부를 말한다.

16) 安沂中이 맞다. 개화인사로 분류되는 그는 이후 1895년 내부참서관, 안성군수, 1898년 독립협회 회원을 한 바 있다.

본과'에 반대하는 뜻을 표하고 있었고, '가짜동학당' 토벌에 노력한 전 충주 목사 민영기의 유임을 지역민들이 청원한 사실, 김가진과 신임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장시간 밀담 사실도 언급했다.

짧은 지면에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은 범부협관 김학우 문제였다. 김학우는 일찍이 도쿄, 오사카 등 각지를 다녔고 도키스케와도 일본에서 상면한 바 있던 유력한 '일본당'이었다. 그는 9월 7일 김학우를 방문하여 조선의 개혁사정을 물었다. 범무아문은 일본의 사법성과 같이 사법재판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그 집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관리는 20여 명이었다. 아문에서는 새로 개정된 관제를 실시하여 착착 개혁의 실을 거두고 있었다 한다. 당시 서울 내의 죄수는 평균 15인 내외로 이같이 적은 것은 '법률의 불완전'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무릇 개혁이 결실을 보려면 사람들이 각자 이를 실행할 결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 보다는 '인심의 단결'을 요구하니 조선정부의 하는 일이 종종 이와 같다고 했다.

서울에서 김학우를 만난지 두달 무렵인 10월 31일 그가 자객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키스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학우의 집을 방문하여 사건현장을 볼 수 있었다. 그가 묘사하는 현장은 김학우 자택 세 번 굽어 들어가는 1칸의 방으로 시체는 요를 덮고 병풍으로 둘러쳐져 있었다. 실내 곳곳에 피가 낭자하고 천정 여러 곳에도 칼자국이 보였다. 사건 당일 밤 김학우는 두명의 손님과 같이 저녁밥을 먹고 있었는데 8시 지날 무렵 조선인 10여 명이 문 앞에 이르러 그 중 한명이 현관에 와서 안내를 청했다. 이에 김학우가 누구냐고 묻자 자기는 田庄을 지키는 사람인데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했다. 그가 땅에 엎드려 절을 마치자 문밖에 있던 다른 사람이 곧바로 실내로 들어가, 먼저 앉아있는 두명의 손님을 칼로 베어 부상을 입히고 드디어 김학우를 살해하였다. 자객은 현장에 칼집, 손등, 우산 등을 흘리고 도주했다.¹⁷⁾ 도키스케는 김학우를 '韓政 개화당 중제1류 인물'로 평가하면서 그 비참한 죽음을 애석해했다.

17) 그 내용은 『東京朝日新聞』, 1894년 11월 10일자에 전제되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국왕은 조칙을 내려 경무청에서 '凶人'을 속히 잡아들여 '어지러운 싹'을 끊으라고 했다. 도키스케는 자객을 사주한 자는 '사대파의 사람'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 당시 개화파들은 자신들도 어느 순간 암살될 지도 모른다고 전전긍긍했고, 김가진같은 사람은 장위영 대장 조희연의 집에서 잘 정도였다.

그는 김학우가 살해될 때 온 손님은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3인으로 이름은 김건행, 이의진, 김항기라고 정정했다. 김건행, 이의진은 상해를 입고 김항기도 부상을 입었지만 자객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즉시 구류되어 취조를 받았다. 김건행, 이의진은 경상으로 완전히 쾌차했다. 김학우가 칼에 찔린 刀痕은 7, 8군데로 자못 참상이 극에 달한다고 했다.¹⁸⁾ 일본 해군대위 이구치(井口)가 현장을 임검했고, 경무청에서는 계속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실마리를 잡지 못했다. 새로운 평설에 의하면 그 교사자는 신정부에 반대하는 대원군이라고 한다.¹⁹⁾ 그러나 이는 상상하여 말하는 것으로 아직 근거로 믿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단정했다. 그는 조선에서 계속 암살이 행해졌지만 칼로써 살해한 것은 이번이 효시로 김학우처럼 혁명을 하려면 두세 차례 암살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혁명'을 빨리 앞당겨야 할 것이라 결론내렸다.

18) 니시무라 도키스케가 송고한 신문 기사를 보면 이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김학우는 오른쪽 눈부터 왼쪽 눈 밑 뼈 속 깊숙이 2寸 5分 1곳, 왼쪽 귀 1곳, 머리 상부에서 후두부까지 3寸 5分 2곳, 머리 왼쪽 정수리부터 후두부까지 6寸 1곳, 오른쪽 정수리 2寸 1곳, 왼손 1곳, 손가락 1곳 등 도합 8군데 칼에 찔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東京朝日新聞』, 1894년 11월 13일자.

19) 당시 일본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즈도 이를 대원군과 정치개혁파의 '생사를 건 암투'로 평가했다. 陸奥宗光, 1896, 『蹇蹇錄』(김승일 역, 1994, 범우사, 159쪽).

6. 군국기무처와 ‘조선개혁’

그는 조선의 정치기구 중에서 특히 軍國機務處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였다. 군국기무처는 갑오개화파의 비상내각 역할을 하던 곳으로 일본의 영향력 아래 많은 개혁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진 기구였다. 그러나 그가 본 군국기무처²⁰⁾는 활력있는 정치기구가 아니었다. 각부 대신들은 군국기무처 회의 후 일본공사관을 방문할 정도로 종속성이 심했을 뿐 아니라 그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신들이 회의 참석을 꺼렸기 때문이었다. 도키스케가 군국기무처를 방문해보니 건물은 퇴락하여 수선 중이었고 집무소로 생각되는 곳은 의자 1개, 책상 1개도 없고 관리들은 앉아 있지만 사무는 아직 실마리도 제대로 풀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얼마전 대원군이 18명의 대신과 협판을 소집했는데 참석자는 겨우 6인에 불과했고, 9월 7일 열린 군국기무처 회의도 몇 명만 출석하여 유회되었다 한다. 이에 국왕은 결석자들을 명기하여 엄히 推考하라는 조칙을 내렸다.

대다수의 일본인처럼 그 역시 일본의 조선정책의 큰 방침은 ‘조선의 獨立扶持’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조선정부는 아직 청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고 조선인 스스로 자신들을 중립국 인민이라고 말했지만, 조선은 아직도 ‘구름 속에서 가는 것’을 도모한다고 생각했다.

도키스케는 군국기무처 같은 다수가 모인 회의조직은 의견이 분분하여 일치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반면 회의조직으로 종래 6아문은 국왕이 친히 임하고 대원군이 보좌하여 ‘萬機를 一決’할 수 있었지만, 중앙과 지방정부가 서로 통하지 않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조선은 내각도 새롭게 바뀌었지만 정부 내의 ‘閔族의 末派’는 여전히 노후한 관리를 지방관으로 임명하고 신내각 역시 예전과 별반 다름없기에 개혁의 실을 거두기는 어렵다

20) 그는 군국기무소라 했다.

고 보았다.

갑오개화파 내각에 대한 그의 불신은 이어진다. 이를 조선인 아무개가 일본인 유지를 방문하여 대화한 내용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조선인은 “지금 일본은 義兵을 내어 우리나라의 독립을 扶植하여 실로 감격스럽지만 어찌하여 신정부의 사람들은 권력쟁탈을 일삼고 조금도 국가의 이해를 돌아보지 않기가 이 같으니 국가는 어찌할 것인가?”라 개탄했다.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 충청도의 田愚, 평안도의 朴文一, 강원도의 劉世南 3명을 발탁하여 신정부에 받아들여 개혁에 종사시킨다면 천하의 인심이 하나 같이 화합할 것이지만 세상일이 다 뜻대로 안돼 유감이라 했다. 도키스케가 다른 조선인을 통해 그 3명을 확인해본 결과 모두 ‘숨은 군자’라는 것이다.

그는 진실로 조선은 ‘정신적 개혁’을 할 의사 없이 가만히 평양에서 청일전쟁의 승패 여하를 관망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았다. 또한 지금 전쟁은 수단이고 조선 독립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옹호한다고 천명한 이상 전쟁 승패 여하에 구애받지 말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의 개혁은 이와 상반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책임은 결국 일본정부가 부담해야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일은 조선 한 나라의 존망여하뿐 아니라 크게는 일본국민의 의무이기에 일본의 정당원과 유지들은 조선에 들어와 그 실상을 보고 국내여론을 환기시키고 제국의회에서는 큰 방침을 강구하여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할 것을 역설했다.

한편 김굉집, 김가진의 추천에 의해 장위정령관 禹範善 등이 군국기무처 위원에 추가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그는 박영효 일파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우범선은 9월 25일 건백서를 올려 정부에서 발탁해야 할 재야인사로 충청도 목천의 전우와 강원도 인제의 유세남 2명을 추천했다. 전우는 조선의 유명한 학자로 제자가 수천명이고 유세남은 ‘대경제 대경륜’을 가진 자로 이미 20년전 외국의 문자를 통해 일본과 청국을 유력하면서 천

하의 대세를 깊이 인식한 조선의 賢士이므로 이들을 등용하면 조선의 부강을 기약할 수 있다고 했다. 도키스케는 이 두 사람 또한 박영효과일 것이라 추론했다. 책에서는 우범선의 군국기무처 위원 임명 조칙과 우범선전백서 전문을 실었다. 후자는 그간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로 보인다. 도키스케는 우범선의 군국기무처 의원면직 상소문도 입수하여 그 전문을 기재했다. 우범선을 그는 온후하면서도 기개와 무개가 있는 식자로 이해하고 있다.²¹⁾

7. 일본군과 청국군, 조선군인들

도키스케는 8월 30일 서울 처음 들어오던 날 남대문에 이르러 일본 군대의 빈번한 왕복을 보고 비로소 전쟁터에 들어온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날 그는 일본군 부대를 방문하였다. 이때 한 좌관은 일본 도처에서 인심이 흥분하여 해륙의 전승을 축하하고 군자금 헌납자 등이 계속 이어진다고 말했다. 도키스케는 총선거가 내일 모래로 임박하고, 임시의회에서는 국방군비를 만장일치로 가결할 것 같지만, 평양의 청국병사 구축이 지연될 것이라 예상했다. 또 모 사단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의 일본군 사령부는 곧바로 방한도구를 만들어 개성부로 향했다. 노츠 시즈다케(野津鎮武)²²⁾ 사단장은 군대를 이끌고 북행했다. 이때 아사히신문사 동료도 동행했다.

그는 얼마전 일본군대의 경상도 문경 영내 통과 시 문경부사 金植根이 이를 우대하고자 지역민들에게 고시 경고하였다는 전문 10개 조항을 전제

21) 우리에게 우범선은 그로부터 1년 후인 1895년 훈련대 제2대대장 시절 명성황후 시해사건 가담혐의로 일본에 망명했고 이후 농학자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1903년 일본에서 전 만민공동회 회장 고영근에게 암살되었다.

22) 후일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대한제국 정부의 군사고문으로서, 1905년 황실 근위부대인 元帥府 해체를 주도했다.

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혹 일본인에게 실례를 하지 말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의심하여 스스로 소요하고 혹 山幕에 있는 자와 결탁하는 자는 타일러서 금지시켜 민심을 안정케 할 것, 만약 논 주인이 함부로 거두는 폐와 作人이 억지로 減하는 폐가 있으면 일체 엄금할 것, 東徒가 민간에 侵擾하는 폐가 있으면 우선 타 이르고 만약 제어할 수 없으면 각 동에서 미리 단속하고 만약 孤村勢弱하면 가까운 동과 같은 마음으로 합의하여 끝까지 방어한다. 만약 한사람이라도 두려워 피하거나 약속을 위반하면 반드시 엄한 울로서 다스릴 것, 전 신주 파괴의 죄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돌릴 것이다.

부사 김식근에 대해서는 '조금 일견식을 가진 인망있는' 사람으로 평했는데, 아산 성환전투와 평양전투 이후 일부 지방관들은 그간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일변하여 일본군의 승리 격문을 관내에 붙이고 그들을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기까지 했다.

서울의 우편국 사정도 전했다. 이곳에서는 특히 근래 인부로 채용된 자들이 일본으로 환전하여 보내는 업무가 증가하고 군대가 교체됨에 따라 나날이 우편사무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보내고 받은 군용 電信 수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루 평균 200통이 되었다. 이것은 일본 국내의 보통전신에 비하면 근소한 것 같지만 일본의 전보는 평균 3통 정도이고 군용전신은 長文으로서 평균 15통이며, 이곳의 군용전신소에는 기술자 1명이 주야로 교대하고 지방에서는 두 사람이 사무를 보기 때문에 야전우편 사무가 매우 바빴다고 한다.

한편 9월 3일 조선군과 같이 북진했던 공사관부 와다나베(渡邊) 소좌가 다음날 임진강에 도착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러나 기후가 매우 변덕스러워 용산 야전병원에 입원한 자가 다수였다고 한다. 심한 자들 몇 명은 인천을 거쳐 일본으로 귀국했고, 그 교대로 신병들이 용산에 도착했다는 사실, 경부간의 도로 정비를 위해 공병대가 부산으로부터 서울로 들어왔다는

소식도 들었다.

9월 13일 오후 5시에는 고도히도신노우(載仁親王)²³⁾가 전쟁 격려차 서울로 들어왔다. 이때 일본인 거류민 다수는 남대문 밖에 나가 출영했고, 친왕은 곧 남산 羅洞의 제3사단사령부의 만찬에 장교들을 초대했다. 이때 군악대 연주가 있었다. 당시의 정황을 도키스케는 '官妓 유흥의 야회에 비해 勇壯하고 쾌활'하다고 평했다. 또한 수일 전 미국, 프랑스, 영국의 水兵이 일본인 거류지를 방문한 후 일본병사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다수를 술집으로 불러 수차례 술을 권하자 병사들은 이유없이 초대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당시 서양 수군들은 1인당 40~50달러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용맹하고 질서있는 일본군에 비해 청국군의 상황을 패잔병 문제와 군 지휘부의 불일치, 군기의 문란 등을 예시했다. 그 구체적인 예로 패잔병 賈龍德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가용덕은 아산전투 패전 후 도망하여 황해도 사령 근방 이천에 머물고 있었는데 일본군 초병이 체포하여 얼마전 서울로 보내 취조를 받았던 자이다.

가용덕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산해관 정연군 중영의 오장으로 葉志超의 부하였는데 火夫와 취사를 맡은 비전투병이었다. 각 영에 배치된 부대원 전체의 1/5은 병기를 휴대하지 않은 자들로 중군지원자와 합쳐 대략 200명 정도였다. 각 영의 급료는 1개월에 3량 6전인데 이 중 각자 의식비를 감하고 나머지는 쌀로 대신해 매월 8전 5푼을 받았다. 또 상의 가격으로 2량 4전, 하의는 6전, 통상 피복비 1량 6전, 군화비 6전을 지출하기 때문에 병사들의 실제 급료는 매우 적었다. 각 영관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했고 의식비는 통상 시가의 배를 받았기 때문에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 식료는 쌀과 소금에 절인 채소가 대부분이고 소, 돼지, 닭고기 등을 먹을 수 없었다. 이러한 거친 음식도 항상 배부르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병사들은 수시로 들에 나가 야생과일들로 일시 허기진 배를 채웠고 그 결과 치질 등 병에

23) 일본 천황가의 한사람. 親王은 황제의 아들이나 형제를 말한다.

걸린 자가 매우 많았다 한다. 이는 일본군대의 엄숙함에 비해 청국 병사의 규율 없음을 증명하기에 족하다는 것이다.

처음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사령관 葉志超²⁴⁾와 聶士成²⁵⁾ 두 사람 사이의 논의가 항상 일치하지 않았는데, 聶은 일본군과 싸움을 주장했고, 葉은 이를 피해 끝내 전쟁 전날에 부하병사를 이끌고 도주했다 한다.²⁶⁾ 따라서 아산 및 성환의 전투는 聶士成이 지휘하게 되었다. 이때 武備學堂의 학생 약간이 그를 따라 싸워 사망했고 聶은 월봉산 앞에 있는 수풀 속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스스로 이를 지휘했다. 월봉산 부근의 전투는 극렬했는데 일본병 한 부대는 그 수풀 속으로 들어가 후방으로부터 수차례의 나팔소리와 함께 나타났지만 청국 수비병은 홀연 陣을 버리고 궤멸 도주했다. 일이 이에 이르자 청국군사들은 袁世凱²⁷⁾를 원망하며 부하들을 돌보지 않고 장수들이 먼저 도망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였고 북경정부에 탄핵까지 했다. 청국군사들은 평시에는 대장으로부터 가혹한 수탈을 받고 있다고 항상 한스럽게 말했고, 이같은 박봉으로서 누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인가 했다. 이는 실로 청국군의 현실로 도키스케는 "입을 열면 먼저 돈의 다소를 논하고 조금도 국가적 관념 없는 청국 용병의 무절조한 것이 대략 이와 같다"고 개탄했다.

도주한 가용덕은 5일 후에 공주에 도달했는데, 葉은 이미 청주로 도주했

24) 1838-1899. 안휘성 合肥사람. 직예제독이자 청일전쟁 시 총사령관으로 조선에 출동하여 아산전투, 평양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패퇴했고 이후 관직에서 추방되었다.

25) 1840-1900. 안휘성 合肥출신. 청일전쟁 시 태원진 총병으로 십지초와 함께 청국군의 사령관으로서 일본군과 대적했다. 1900년 의화단 사건 시 연합군의 북경진공 저지를 위해 천진방어전투 중 전사했다.

26) 葉志超는 부하병사 다수를 이끌고 관동과 관북으로 우회 퇴주했고(『甲午實記』, 『東學亂記錄』 上, 59쪽), 흩어졌던 청국군은 평안감사 민병석의 원조로 평양에서 합류했다.

27) 1856-1916. 군인이자 정치가로 1884년 북양대신 이홍장의 명으로 조선에 들어와 총리교섭통상사의 직책으로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조정했다. 청일전쟁 시에도 조선정부를 주도했으며 이후 1900년 의화단을 진압했고, 1913년 중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후 야심을 품고 1916년 스스로 황제를 칭한 바 있다.

고 이후 그 소재를 알지 못했다 한다. 도로에는 청국군 부상자 중 사망자가 속출하고 일부는 말을 빌려 도주했다. 그런데 각자 자기 말을 다투어 혼잡스러웠고, 도망 중 옷을 바꾸어 입는 자도 많았다 한다. 이 전투에서 청국군 사망자는 200여명, 부상자는 300여명으로 추산했다.

조선군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조선군은 혹은 도중에 도주할 우려가 있는 자도 있지만 능히 군율을 엄수하여 일본 사단본부와 같이 용감하게 북행함으로써 '日韓同盟의 實'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가 파악하는 조선병사 중 가장 용감한 부대는 장위영병이었다. 장위영 부영관 李斗鎬²⁸⁾는 이들 중 한 부대를 통솔하여 평양으로 향했다. 또한 일본군 장교 하사를 통해 일본식의 연습을 받고 있는 각도에서 소집한 조선병은 200여 명으로 용맹하다고 한다. 호령을 비롯한 군사훈련은 전부 일본식이었고 이들 또한 능히 군율을 지켰다고 기록했다. 훈련의 목적은 후일 이들을 하사로 채용하여 여타 조선군의 모범을 보이는데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 관련있는 병사들에 대한 칭찬과는 달리 일반병사들에 대한 그의 시각은 부정적이었다. 예컨대 "대궐 내의 조선병은 한가하면 삼삼오오 각처에서 도박을 항상 하고 문을 수비하는 일본순사가 이들을 포박하려 하면 몸을 낮추고 머리를 조아려 목인을 청하는 것이 잦다"는 것이다.

8. 동학농민군의 동향

니시무라 도키스케는 조선의 농민군을 동학당과 '가짜동학당(僞東學黨)'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인들의 일반적 정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그 역시 대부분의 내용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에서 분류한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 특히 적극적 행동을 보인 지방의 움직임은 대체로 '가짜동

28) 죽산부사인 李斗璜의 諷記이다.

학당'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여러 지역의 농민군 동향을 기록했다.

먼저 함경도의 상황이다. 그는 원산으로부터 육로로 입경한 한 일본인을 통해 그곳의 사정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원산 근방에는 동학당이 많았는데 그가 길에서 어떤 조선인과 필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 또한 '東徒'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원산-서울간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정직하고 의기도 풍부하여 일본 군대가 북상할 때 기쁘게 맞고 양식운반을 주선했고, 나아가 동학당에게 "지금 일본은 조선독립을 돕기 위해 이 같이 대군을 파견했다"는 뜻을 말했다고 한다.

동학도는 전라도 일원과 연해 각 도서에 많은데, 그 안에는 노름꾼과 노예도 있고 이름을 동학당원에 가탁하여 '난폭하게 행동하는 자'도 있다고 기술했다. 이들의 규율은 엄숙하고 호령도 능히 행했다고 한다. 통령으로 불리는 사람은 모두 8명으로 그 중 수장 1명이 있어 동학도들이 진심으로 그에게 복종했다는데 얼마전 入京했다는 설이 있었다. 이들의 목적은 지방관의 학정을 고치는데 있어 그 결과 전라도 각 지방관이 지방정치 개혁을 맹세하고 장부를 만들어 調印²⁹⁾하기도 했고, 지금 정부의 개혁에는 동학도들도 자못 찬성을 표한다는 것이다.

경상도에서는 감사가 영천군의 농민군 때문에 군수 홍용완의 죄를 청한 사실도 있었다. 또한 경상감사 전보에 의하면 동학도 수백명이 성주에 들어가 관리와 백성이 힘을 합해 이를 막았지만 군사들이 난리를 피해 몰래 도망함으로써 결국 동학도들에게 지역을 잃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성주목사 오영석을 파직하고 조익현을 후임으로 정했다. 그는 군사를 보내 그 '巨魁'를 참한 후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장담했다. 松蹄지방에서는 이름을 동학당에 가탁한 한 무리의 '폭도'가 크게 일어나 "지방의 학정을 개혁한다"고 '뱃심 좋게' 말하지만 실은 강도짓을 하여 양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많다고 한다. 이들은 양민 30여명을 포박하고 있었는데 곧 진압했고, 양민들은 문경까지 대려와 풀어주었다 한다. 星州, 洞東 양 읍은 농민군에 의

29) 동학농민군 총대장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의 '官民相和'를 말하는 듯하다.

해 불에 났는데³⁰⁾ 국왕은 피해자들에게 1만량을 하사하는 한편 동학당 봉기와 관련한 조칙 내용도 全文을 의역 기재했다.

9월 25일 飛報에 의하면 근래 동학당이 서울 내외를 배회하고 오늘 내일 사이에 폭동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현지 수비대는 척후를 보내 정찰시켰다 한다. 다음 날 아침 1개 소대를 송파진에 파견했다. 동학도는 “우리 당은 신정부를 좋아하지 않고 일본공사의 정책에 반대하는 고로 신정부를 타도하고 일본 거류지를 초토화시킬 것이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문에 불과하였다. 일본군 수비대의 척후정찰 결과에 의하면 동학도는 오지 않았고 단지 빈민들의 시위운동만 있었다 한다. 한편 9월 28일 밤 동학도 3천명이 서울로 들어와 다음날 거사를 위한 격문을 날랐다는 설이 있었다. 이에 일본군은 또다시 수비병 척후를 보내 정찰을 하고 크게 경계했다.

10월 6일 밤 12시 반 원고를 마칠 무렵 도키스케는 갑작스런 종소리를 듣고 놀랐다. 순사 병사들이 서울 시가지를 돌아다니며 “불이야!”라고 소리 질렀다. 이에 밖을 보니 남대문 방향에서 불이 하늘로 솟구쳐 1시간 후 진정되었다. 동학당이 일본인 거류지를 불 지르기 위한 것이 아닌가란 말도 전해졌지만 그는 이를 믿을 수 없었다.

충청도에서는 전 주사 박세강³¹⁾이 난을 일으켰는데 금강 변에 그 머리를 효수하여 백성들에게 경계했다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이 무렵 천안에서 일본인 6명이 ‘가짜동학당’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내용이 집중 부각되었다.³²⁾ 그 결과 만리창의 일본군 1개 소대가 충청도로 향했고 일본 영사관에서도 순사를 파견하여 조사시켰다. 하기하라(萩原) 경부는 순사 2명을 이끌고 천안에 도착하여 조사하였다. 그는 천안군 남산 부근에서 3명, 이곳으

30) 이는 10월 초순 농민군의 성주읍 공세 과정에서 나온 대규모의 민가방화사건이었다.

31) 당시 그는 박동진과 더불어 동학도와 밀통한 혐의로 충청감사 박제순이 처형했다.

32) 이 시기 일본공사관기록에 의하면 천안의 일본인 살해와 삼남 지역 농민군의 복상 준비 등으로 이 지역은 세금징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본군은 원활한 수세를 위해 1개 중대와 30명의 순사를 파견하여 조선정부군에 협조케 했다고 한다.

로부터 수십 마을 떨어진 토성산, 신주막, 토화리에서 각기 1명씩 시체를 발굴하여 검시했다. 남산의 3인의 시체 중 1명은 품안에 6圓과 표찰을 소지했는데, 표찰 앞면에는 ‘第五師團監督部’, 다른 면에는 ‘第一七二四號 廣島縣 沼田郡 三篠村 軍役夫 松本吉造 慶應元年 一月五日生’이라 기록되어 있었다. 이 6인은 모두 인부로서 과중한 노역을 견디다 못해 도망하여 부산으로 가던 중 조선인에게 살해된 자들이었다. 시체는 토성산 부근에서 모두 화장하여 묘표를 세웠고 유품들은 일본 순사들이 가지고 돌아왔다.

일본군은 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천안 거주 金致先, 趙明雲을 취조하고 서울로 잡아 올렸다. 이들 역시 인부로서 남산 부근의 川口橋 가설공사 중 검은 양복을 입은 일본인 6명이 와서 일본말로 무엇인가를 말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 한다. 그러자 일본인들이 몽둥이로 자신들을 구타 기절하여 그 후의 일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당시 남산에는 수많은 동학당원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을 살해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고 했다. 용의자들은 다시 군수 입회하에 계속 신문을 받았고 그 후 일본영사관에서 신문했음에도 확실한 증거가 없자 경무청에 인도하여 다시 취조할 예정이라 한다.

이 일로 취조를 받던 또 다른 조선인에 의하면 아산의 청국군 패잔병이 우두머리가 되어 인솔훈련하고 있는 충청도 각지 동학도의 수는 3, 4만이라고 하지만 실체는 300인 내외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기하라는 천안으로 가는 도중 수원 부근의 오산에서 동학도의 名士라는 洪敬雲을 체포하고 창과 병기 등을 노획했고, 동학농민군 정벌 차 가던 일본군에게 인도했다.³³⁾ 이 지역은 도처에서 동학도가 출몰하고 격문을 날렸지만 일본군이 진압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고 한다.

33) 이는 仁川南部 사령관 伊藤祐義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洪敬雲押送要請』, 『駐韓日本公使館記録』 發제72호, 1894년 10월 30일.

9. 맺 음 말—자료의 의의

일본인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으로 분명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시무라 도키스케의 취재수첩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가 기록한 특징적 내용은 먼저 1894년 청일전쟁 시기 일본군의 조선 출병과정, 서울주둔 일본군의 배치, 일본군의 조선 내 활동상황이다. 또한 전쟁의 직접 당사자인 청일군의 비교분석과 청국군 포로 가용덕의 상세한 취조, 농민군 토벌에 동원된 일부 조선군대의 동향도 기록했다.

한편 조선의 주요 정치가들, 특히 흥선대원군과 박영효의 동향, 김학우 암살사건의 현장 직접조사와 우범선 관련 자료의 소개 등이 특징적이다. 정치가들 중 친일, 반일의 양 계열에 대한 비교도 있다. 갑오개혁을 추진하는 비상 최고 의결기구인 군국기무처에 대한 집중조명을 통해 그 활동의 이면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당시 정국을 뒤흔들었던 군국기무처 의원에 대한 9월 1일 수문장 김기홍의 탄핵상소문 전문과 전 정언 이경호의 김기진, 안경수, 김학우, 조희연, 이윤용 등 '5흉'을 참하라는 상소문 전문도 기재했다.

기타 <대조선 대일본 양국맹약>, 오토리 공사의 조선정부에 대한 '4개조 충고' 원문도 소개했다. 또한 신정부가 교동에 사범학교와 소학교 신설 및 수업을 개시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신정부 조직이래의 치적은 경찰제도와 학교 신설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1894년은 동아시아 3국은 물론 세계사에 획을 긋는 큰 사건이 있었던 해로 그 당시에도 청일전쟁,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출판물들이 있었다. 청일전쟁과 관련해서는 일본 군부의 각종 보고서류, '교전록'을 비롯한 전투상보, 개인의 사진첩,³⁴⁾ 중군화가의 화첩, 삽화 등이 있었다. 동

학농민군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유력 신문들의 기사,³⁵⁾ 天佑俠를 비롯한 浪人들의 농민군 지도부와의 각종회견 기록,³⁶⁾ 조선의 지역사정, 민정동향 보고 등이 있다.

희귀하지만 군인이 개인의 시각에서 쓴 청일전쟁 체험기는 몇 편 있다. 대표적인 것은 하마모토 리사브로(濱本利三郎)의 『日清戰爭從軍秘錄』이다. 하마모토는 愛媛縣 尋常中學校 교사를 하던 중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정부의 소집에 응해 일본군 5중대에 들어가 조선을 거쳐 중국 본토까지 진격하면서 체험한 전쟁을 『日清戰鬪實驗錄』이라는 제목의 일기로 남겼고, 그의 딸이 이를 책자로 간행한 것이다.³⁷⁾ 내용 대부분은 그가 주로 활동하던 만주지역의 것이다.

기자의 기록으로는 사쿠라이 군노스케(柵瀬軍之佐; 1869-1932)의 『朝鮮時事』가 있다.³⁸⁾ 사쿠라이는 마이니치신문사(毎日新聞社) 특파원으로 청일전쟁 취재과정에서 보고 들은 조선의 여러 상황을 삽화와 함께 수필 형태로 정리했다. 그러나 상업용 도서로 1894년 8월 급하게 출간된 그의 기록은 전쟁이 본격화되기 직전까지의 서술이므로 당연히 구체적 내용을 담을 수 없었다. 여타의 기록도 당시 대다수 일본인들이 그랬듯이 강한 주관성이 들어간 악의적 내용으로 일관하고 실제와도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러나 니시무라 도키스케의 『甲午朝鮮陣』은 체험적 사실에 즉한 것이 적지 않

35) 조선 주재 일본인 기자들은 1894년 6월 23일 부산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배에서 14명으로 인천과 서울에 '신문기자 연합본부'를 결성하여 상호 긴밀하게 연락하고 '정확히 취재하고 보도할 것'을 서약했다. 여기에는 朝日新聞, 國民新報, 毎日新聞, 郵便報知新聞, 二六新報, 内外通信, 時事新報, 扶桑新聞 등의 기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각기 일선과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취재를 하면서 청일전쟁과 동학농민군의 동향과 관련한 많은 내용을 자국에 소개했다(柵瀬軍之佐, 1894, 『朝鮮時事』, 春陽堂〔東京〕, 15-16쪽). 그러나 경쟁적인 '특종' 취재과정에서 정확하지 못한 수많은 과장된 기록들을 남겨 일본인들의 조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36) 천우협 낭인들과 동학농민군 지도부와의 접촉은 姜昌一, 1988, 『天佑俠と朝鮮問題』, 『史學雜誌』 97-8 참조.

37) 濱本利三郎 著/地主愛子 編, 1972, 『日清戰爭從軍秘錄』, 青春出版社(東京).

38) 柵瀬軍之佐, 앞의 책.

34) 龜井茲明, 『日清戰爭從軍寫眞帖-伯爵 龜井茲明の日記-』(1992년 柏書房〔東京〕 복간본).

에 여타 기록들과는 차별성이 있다.

이 책을 통해 청일전쟁 시기 서울의 정치, 경제상황과 시민들의 동향, 특히 전쟁에 대한 각 계층의 상이한 이해, 지방민들의 동향에 대한 여러 가지 풍설도 알 수 있다. 그는 일본군과 청국군, 조선군의 규율과 현황을 대비시키면서 일본군의 상대적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와 다른 과장되거나 추측성 언급도 적지 않지만 그의 보고를 통해 갑오개혁 기간 서울 내 여러 정치가들 활약상의 일 단면도 조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 의해 판이 짜여진 군국기무처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개혁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기구로 판단했다. 또한 동학농민군의 각 지역별 상황, 특히 '가짜동학당'의 활동과 그에 대한 일본인들의 위기의식과 관련하여 생생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甲午朝鮮陣』은 한 일본인 기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급박한 전쟁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는 1894년 청일전쟁과 관련한 여러 가지 큰 사건의 내용까지 포함하여 직접 확인한 원 자료와 전해들은 내용을 분명하게 구분 정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자료로 조선정부 측에서 생산한 자료나 개인일기, 문집, 일본정부와 군대의 자료들이 주로 활용되었다. 자료들은 정치, 외교, 군사상황 등에는 자세하나 미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니시무라 도키스케의 짧지만 꼼꼼한 취재수첩을 통해 우리는 1894년 후반기 조선의 정치사회상을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8. 1. 15, 심사완료일 : 2008. 3. 24)

주제어 : 동학농민군, 서울, 아사히신문, 일본군, 청일전쟁, 조선, 군국기무처, 암살, 정치가, 토벌

<ABSTRACT>

The Sino-Japanese War and *Joseon* Dynasty reported by Japanese Correspondents

Cho, Jae-gon

This article is to review on the reports by Japanese correspondents activated during the Sino-Japanese War in 1894. Even through Nishimura Dokiske's reports about the war has limited, there are some significants such as the process of the Japanese Forces' participation, the disposition of Japanese Forces in Seoul, the activities of Japanese Forces in *Joseon* during the war; the analysis comparing the Japanese and Sino Forces which were involved in the war, the statements in detail by the prison of war *Ga Yong-deok* from Sino Forces and executions of *Joseon* mobilized for mopping operations against *Donghak* Peasants Forces.

In addition, there are specific articles in the reports such as activities of major politicians like the Lord *Heungseondaewongun* and *Park Yeong-hyo*, a field investigation about assassination against *Kim Hak-wu* and an introduction of data related *Wu Beom-seon*. Also there are comparison about politicians such as characteristics of friendly Japanese and anti-Japanese, and a focus on *Gungukkimucho* which is one of decision making committees for organization in proceeding the *Gab-o* Revolution in *Joseon* in the reports.

Finally, I obtained results through the review on the reports which is shorts which is short but condensed articles written by Nishimura Dokiske, such as the dimensional and comprehensive situation which were the

aspects political and social in the late Joseon Dynasty around 1894.

Key Words : *Donghak* Peasants Forces, Seoul, *Asahi Simbun*, Japanese Forces, The Sino-Japanese War, *Joseon* Dynasty, *Gunguk-kimucheo*, Assassination, Politicians, Mopping Operations